

SK주식회사 촉매기술 개발자들의 인도 출장기

SK의 명품기술, 세계를 가다



SK주식회사가 개발한 명품 촉매기술, ATA-11이 인도에서 성공적으로 공정개시를 하기까지, 의심 섞인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탄탄한 기술력과 오뎅이 같은 도전정신으로 유수의 경쟁사들을 제치고 인도 릴라이언스(Reliance)사와의 계약을 성공시킨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보자.



게스트하우스에 있었던 인도 신상

인도 속 별천지, Reliance사의 게스트 하우스. 마치 집처럼 살고 있는 보통 인도 사람들의 주거지역은 많이 달랐다.



지난 5월 9일 우리는 SK주식회사에서 개발한 촉매 특허기술 적용을 위해 인도로 향했다. 인도 뭄바이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려 밖으로 나오니 40℃가 넘는 기온에 습도까지 높아 마치 사우나탕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이어 입국수속을 밟기 위해 뭄바이 공항 청사로 들어갔는데 실내는 70년대 우리나라의 버스대합실 같은 분위기에다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몇 대만 돌아갈 뿐이었다.

공항청사의 문을 나오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블랙 택시들의 호객꾼들이었다. 블랙 택시는 여행객들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므로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들은 기억이났다. 몇 달 전 SK주식회사의 제휴사인 지올리스트(Zeolyst)사의 한 할아버지 엔지니어가 인도에 출장을 왔다가 차를 타려고 블랙 택시의 뒷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칼든 강도에게 한번 당하고, 그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사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는 바람에 또 다시 봉변을 당했다고 한다. 그 뒤로 이 회사의 인도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인도에서의 첫 인상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았다.

인도의 SK, 릴라이언스사

이튿날 뭄바이에서 국내선 비행기로 1시간을 날아 인도 서북쪽의 잠나갈(Jamnagar) 지역에서 내려 다시 차로 1시간 가량을 달렸다. 차창 밖으로 인도 사람들의 생활상이 파노라마처럼 눈에 들어왔다. 천막지붕 아래 흙바닥에서 숙식을 하는 것 같은데, 옷도 걸치지 않은 맨발의 어린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대지 위를 뛰놀고 있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SK주식회사가 개발한 ATA-11 특허기술의 구매자(Licensee)인 인도 릴라이언스(Reliance)사에 공정 개시를 지원하러 가는 것이다. ATA-11 특허기술은 아로마틱 공장에서 활용되는데 값싼 톨루엔과 중아로마틱 유분을 고가의 자일렌과 벤젠으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우리의 기술은 경쟁사(UOP·엑슨 모빌·토틸레 등)의 기술에 비해 제품 수율이 높고 다양한 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등 여러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편, 우리 공장에는 1999년에 이미 이 기술이 적용돼 수익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에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셀그룹 계열의 촉매 제조·마케팅 회사인 지올리스트사와 제휴를 맺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기술 마케팅을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7개 공장에 적용이 됐다. 이번에 적용되는 릴라이언스 공장은 시간당 약 4백톤의 원료를 처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로 이는 SK주식회사 동종시설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릴라이언스사는 선대 회장이 1960년대 무역 및 섬유 회사를 창업해서 현재 인도 최대의 에너지·화학회사로 발전했는데, 주 사업분야는 정유·석유화학·텔레콤·전력·발전·보험 등



SK주식회사의 우수한 촉매기술을 검증하고 만족해 한 Reliance社 임직원들(가운데가 장병무 연구원)

이며, 최근에는 해외투자에도 적극적이다. 이처럼 릴라이언스社는 회사의 발전사, 전체적인 사업 구조, 규모 면에서 SK와 매우 흡사하다.

“그래, 고객은 왕이다!”

릴라이언스社에 근무하는 인도인은 자국 내 최고의 엘리트임을 자부한다. 자존심이 세고, 아는 것이 많은 만큼 질문도 심도 있고 다양했다. 상견례를 마치자마자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데 질차나 내용의 구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몇 시간을 집요하게 물어 보았다. 우리가 먼저 시장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끼니도 걸려야 할 분위기였다.

임원들의 파장적인 질문 공세가 끝나면 고참사원들이 들어와서 비슷한 내용을 묻고 나가고, 또다시 엔지니어, 운전원들에게까지 같은 대답을 해야 하니 마치 취조를 받는 기분이었다. 때로는 SK 기술을 못밧겠다는 말투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질문도 있었다. 이렇듯 의문이라기 보다는 의심이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릴라이언스社가 우리 기술을 사겠다고 결정했는지 의아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SK주식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보일 것이고, 그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심신이 피곤해도 몸가짐에 주의했고, 다른 라이선스社의 기술진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공손함과 신속·정확한 일처리로 그들을 대했다. “그래, 고객은 왕이다!”

며칠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의 촉매 적재 작업과 전처리 과정이 지나갔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설비가 멈추는 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렇게 약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고, 제일 중요한 원료 투입 시점이 다가왔다. 이 곳에서는 원료투입 전에 공장의 무탈을 기원하는 의례로 우리의 ‘고사(告祀)’와 유사한 ‘Breaking the Coconut’이라는 종교의식을 갖는다. 제주(祭主)가 맨발로 원료투입 설비 본체까지 걸어가서 손을 함장하여 기도를 한 뒤 그 설비에 코코넛을 부딪쳤다. 코코넛이 깨져야 신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깨진 코코넛 파편과 과즙은 서로 나누어 먹었다. 우리는 2명이기 때문에 원료 투입시기부터 한 명이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이 의식에 동참하느라 실제로는 이를 동안 겨우 6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

SK 명품, ATA-11 특허기술의 완승!

드디어 원료가 투입되었다. 이 때 촉매와 원료가 맨처음 접촉하면 열이 발생하여 온도가 증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온도가 계속 증가하여 설비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가장 어려운 고비이다. 자신이 있지만 워낙 큰 공장이다 보니 다소 긴장감이 느껴졌다. ‘잘 돼야 할텐데...’ 우리의 조언과 지침이 매우 중요했고, 처음엔 의심 많았던 이들도 다행히 우리의 지시를 잘 따라주었다. 우리가 예측한 온도 상승분이 40℃였는데, 그것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어떤 성격 급한 인도인이 원료가 투입되자마자 시제품의 샘플분석을 시작했다. 그들 입에서 “Super Catalyst”라는 말이 연발해서 튀어 나왔다. 사실 원료투입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의심과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며 굳어있던 릴라이언스社 경영진들도 얼굴에 열은 미소까지 띄우며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돌변했다. 이후 모인 회의에서 그들 중 일부는 마치 자신들이 SK 사람인양 몸소 촉매성능에 대해 자랑하기도 했다. ‘SKMS의 가장 효과적인 PR관리가 이런 것이었지...’ 더구나 공교롭게도 바로 옆의 똑같은 반응기에는 다른 유명한 라이선스 회사의 촉매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 기술과 즉석에서 비교가 되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온 SK의 명품기술, ATA-11 특허기술의 완승이었다. 쾌재를 불렀다.

마지막 날 저녁식사 때에는 그곳의 임원 10여 명이 거창한 식사 대접을 해주었고, 한국과 우리 회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질문이 있었다.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풀려 진하게 한 잔하고 싶었으나, 잠깐갈 지역은 알코올 음료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서 저녁식사 자리에서도 음료수로 건배를 해야만 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속수에 돌아왔을 때도 시원한 맥주 생각이 간절했다. 이런 일을 마치고 나면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제격인데...

몸은 힘들었지만 일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돌아오는 여정은 더없이爽快했다. ‘수십 년간 로열티를 주지만 했던 우리 회사가 이제는 로열티를 받는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구나’란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사실 릴라이언스社에는 우리가 2001년도에 웅찰한 적이 있었으나 우리 기술의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존 라이선스社에 대한 맹목적 신뢰 때문에 당시에는 수주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에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열기 위해 수시로 릴라이언스社를 방문하여 설득하고, 때로는 그들의 분쇄 해결을 위해 밤새도록 현지에서 고민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술 서비스를 수행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난 3년간 정성을 들였던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일과 씨워서 이긴 승리감이 배가되는 것 같았다.

SK R&D가 이와 같은 첨단 촉매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동안 기반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를 통해 축적한 탄탄한 기술력과 혁신을 위한 도전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SK주식회사는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함으로써 회사가 글로벌 SUPLEX 컴퍼니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동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글: SK주식회사 화학공정연구실 임병수 수석연구원·장병무 연구원